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5 권 24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 (오전 8 시) 후 친교실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부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오후 2 - 8 시). 화,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예수 성심성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굽어 죽지 않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송을 드리게 하소서.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6/14	이 클라라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6/21	이 마틸다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6/28	유 요한	김 헬레나	성인복사
7/5	이 클라라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6/7	\$	\$	\$

*2 차 봉헌: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에 한국어 평일 미사가 있습니다.

예비자를 위한 기도

현재 한인공동체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8 시에 예비자 교리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비신자들이 교육과정을 잘 마치고, 신앙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실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죄의 시초

정혜옥 데레사 | 계산본당

오래 전에 읽은 글이 생각난다. 술에 대한 글이었다. 메피스트로 변장한 간악한 악마가 착실하고 선량한 청년 곁으로 다가갔다.

“젊은이여 그대는 살인을 할 수 있겠는가?”하고 물었다. 청년은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대답하였다.

“사람을 죽이다니요. 그런 일은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어찌 그런 무서운 것을 물어보십니까?” 하였다.

“그러면 도둑질은 할 수 있겠지.”

“아니, 물건을 훔치다니요. 나의 두 손목을 얹앤다 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오, 너는 참으로 훌륭한 젊은이로군. 그런데 거짓말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메피스트는다시 물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나는 죽어도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메피스트가 말하였다. “참으로 보기 드문 청년이로군, 너는 나의 시험에서 승리하였다. 승리의 기념으로 축배를 들자.”진홍빛 술이 청년의 잔에 채워졌다.

그 날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혼자 미소하였다. 자신의 승리를. 그리고 잊을 수 없었다. 달콤하고 향기롭던 붉은 술의 감미로운 맛을. 그 한 잔의 술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하였다. 혼자 술집을 드나들었다. 한 잔만 하던 것이 석 잔으로, 잠깐만 하던 것이 밤을 지새우게 되었다. 아들의 밤 외출을 궁금해 하는 부모님에게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어떤 때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거짓을 말하며 어머니에게서 돈을 타 내었다. 술값이 떨어지면 집안의 돈을 훔치고 아버지의 주머니를 뒤졌다. 도둑질의 시초가 되었다. 어느 한밤중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는 순간 “오, 그동안 나의 돈을 훔친 도둑놈을 잡았다. 어떤 놈이냐. 불을 켜고 얼굴을 보아야겠다.”

공 동 체 소 식

6 월은 ‘예수 성심 성월’

6 월은 예수성심성월입니다. 6 월동안 주일미사 시작 5 분 전에 ‘예수 성심 성월 기도문’을 바칠 예정입니다.

6 월 소공동체 구역모임: 6/21 (주일) ‘오전 8 시 주일 미사’ 후

5 월 소공동체 구역모임은 6 월 21 일 (주일)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6 월 친교를 위한 저녁모임: 6/28 (주일) 저녁 5 시

주임신부님과 함께하는, 6 월 친교를 위한 저녁식사 모임은 6 월 29 일(주일) 저녁 5 시입니다.

‘사도행전’ 필사: 소구역장님께 제출

현재 매 주일미사 후 진행되고 있는 ‘사도행전 통독’이 끝나는데로, 사도 행전을 필사하신 분은 구역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이 쾌유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베이커스필드 한인 합창단

베이커스필드 한인 합창단을 전 요아킴 신부님께서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또한 전교를 위해, 더욱더 많은 한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와 참여부탁드립니다.

순간 청년은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입을 막고 목을 눌렀다. 그때 허공에서 울려오는 차디찬 소리,

“술 한 잔, 그렇다. 나는 이 술 한 잔으로 인간에게 어떤 죄악도 저지르게 할 수 있으리라.”

음흉하고 잔인한 악마의 소리가 들려왔다.

텔레비전에 자주 술이 등장한다. 연속극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화가 나고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술을 꺼내어 들이킨다.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온다. 그것을 보고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할 것이다

“어른들은 화가 날 때마다 술을 마시는구나. 술을 마시면 화도 풀리고 모든 근심걱정이 사라지는구나.” 하며 앞으로 곤경이 닥치면. 지혜로운 생각으로 해결하지 않고 술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영국 속담에 “첫째 술잔은 갈증을 낮게 하고 둘째 술잔은 영양이 되고 셋째 잔은 유쾌한 기분을 준다. 그러나 네번째 잔은 사람을 미치광이로 만든다.”고 하였다. 이태백은 “칼로 물을 베면 다시 물은 흘러가고 잔을 들어 술을 마시면 근심은 더욱 깊어진다.” 고 하였다.

어제 새벽 미사 때, 성당 문전에 기대어 있는 젊은 청년을 보았다. 술기가아직 남아있는 청년은 혼자 비실비실 웃고 있었다. 폐인의 모습이다. 성당 문 앞에서 밤을샌 청년의 행위가 궁금해진다. 그의 의식 속에 아직 남아있는 하느님을 찾아 술 취한 몸을 휘청거리며 성당으로 왔을까. 아니면 아직도 그의 눈에는 하느님의 존재가 몽롱하게 흔들리고 있을까. 고함지르고, 구토 질 하고 마침내 의식불명이 되는 우리의 음주 문화, 두렵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시선이, 어디에선가 노려보고 있을 메피스트의 차디찬 미소가.

죄의 시초는 이렇게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악마의 유혹은 나날이 간악해지고 있다.

<대구주보에서>